

## 우리 나라 圖書館을 發展시키는 길

會長 李 瑄 根

圖書館人들은 「韓國圖書館의 近代化」란 永久 主題를 내걸고 이 目標 達成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全國圖書館大會란 行事를 통하여 圖書館人들의 目標 달성을 위한 研究와 進路를 協議 檢討하고 그 對策을 마련하여 정부당국에 建議도 하고 自體의인 運營方法을 꾸준히 改善해나가고 있지만 일반국민으로부터는 별다른 觀心을 끌지 못한채 집안 행사로 幕을 내리곤 한다. 그렇지만 이 大會를 통하여 도서관인들은 도서관을 일종의 博物展示場처럼 방치한채 되돌아 보지 않는 당국의 政策에 대하여 助言을 하고 長期的인 眼目에선 圖書館 政策의 樹立을 촉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나라 도서관이 그 族設, 서어비스, 資料質態등 모든 면에서 심한 落後현상을免치 못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도서관실태가 우선 人口比例로 봐서 그 族設의 빈약도에 있어서만도 世界最上位에 속하는것은 더 말한 나위도 없거니와 그 안에 所藏된 資料 또한 빈약하기 이를데 없는 것은 일반상식처럼 되어 있다. 도서관인들이 「우리 나라에는 일찌기 도서관 정책이 있어 본일이 없다」고 정부를 원망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1963년에 制定된 現行圖書館法이 10餘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간 한번도 法改正이 없었다는 것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도서관정책의 철저한 不在를 정확히 매번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공공도서관의 빈약상은 全體 도서관의 面을 잘 말해주고 있다. 더군다나 도서관을 利用하는 이른바 「라이브러리·고위」들의 매다수가 사실은 그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려는 것보다는 시험준비등 자기 공부를 하기 위한 場所로 使用하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실처럼 되어 있다. 이에는 勿論 여러가지 經濟的 社會的 여건의 不備로 인한 절대 讀書人口數가 적은 反面 學校나 가정에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客觀的인 要因이 크게 作用하고 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도서관을 기형적으로 만든 보다 큰 요인은 어디까지나 도서관을 이치럼 방치해 둔 도서관 정책의 빈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도서관 육성책을 크게 두가지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도서관法을 기초로하여 도서관施設이나 內容을 擴大함으로써 圖書館 基本政策을 發展시켜 나가야 될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重點主義의 도서관육성에 주력을 두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國立도서관, 서울대학교도서관등 代表的인 몇개의 도서관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그들 도서관으로 하여금 도서관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케 하고 아울러 專門도서관을 확대시켜 도서관 活用的 폭을 넓혀 나간다면 새로운 次元에서 도서관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함께 이들 도서관시설의 活用, 전문가에 의한 독서지도, 「메스컴」을 利用한 현대적 도서관 운동 내지 독서 운동을 전개하는등 도서관 利用에 대한 참다운 관심과 그 效果的인 充足을 위한 도서관 정책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大膽하게 推進되어져야 할것이다.